

이원형 어워드 수상작가전

큰 글자·점자 리플릿

한국어

이원형 어워드 수상작가전

“창작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창작의 과정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찾아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만든 틀을 벗어나 오롯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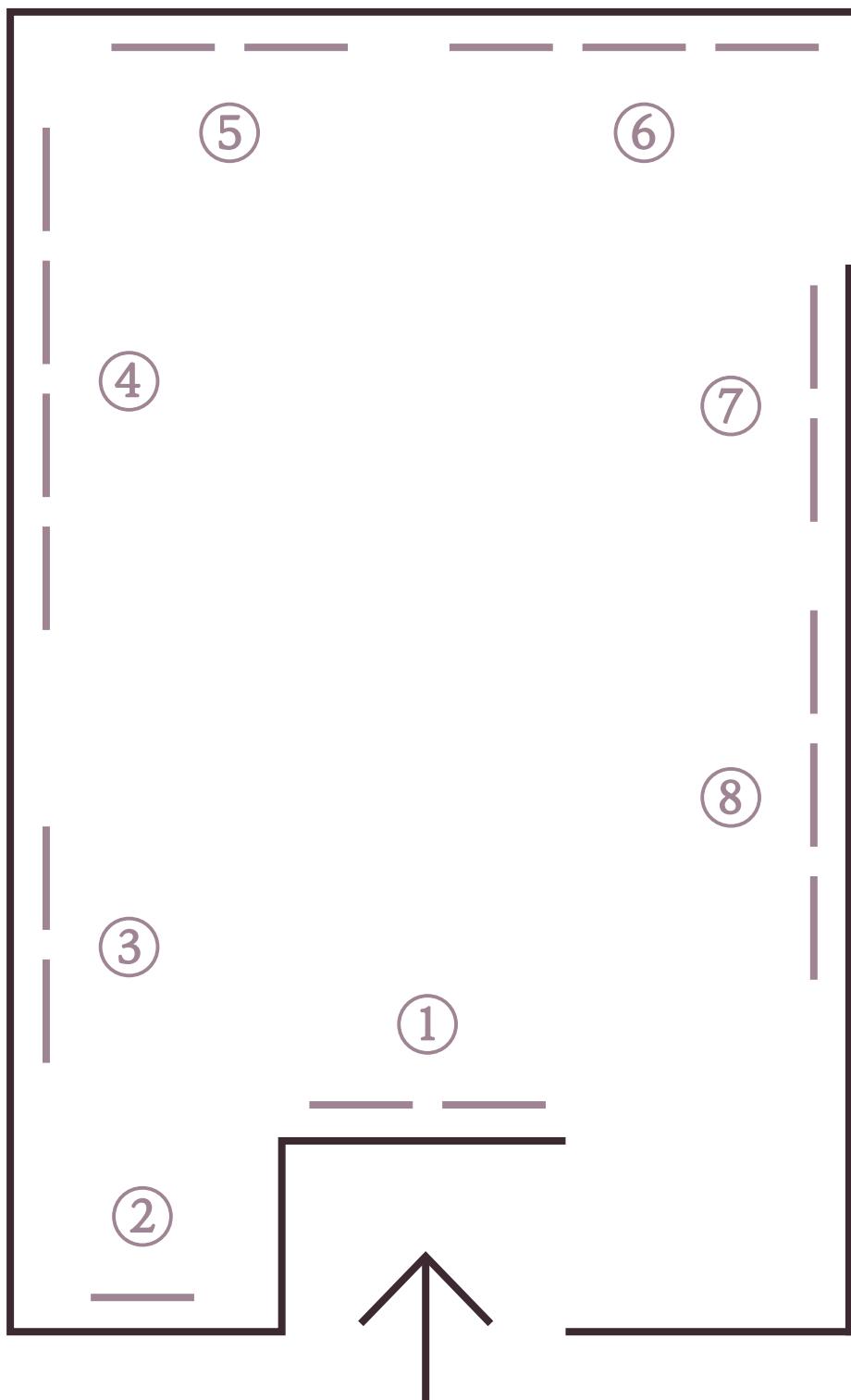
«이원형어워드 수상작가전»은 조각가 고(故) 이원형 (1946-2021)의 예술 세계를 기리며, 후배 장애예술인들의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원형 작가는 소아마비로 인한 신체적 제약 속에서도 청동과 같은 무거운 재료를 다루며, 인간의 고통과 희망을 조형적으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2018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이원형어워드'를 제정했습니다. 이 상은 단순한 상을 수여한다는 의미를 넘어, 선배 예술가가 후배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한다는 연대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원형어워드를 통해 발굴된 8인의 장애예술인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며 작가들의 창작에 대한 탐구와 집념,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펼쳐냅니다.

고(故) 이원형 조각가(1946-2021)는 캐나다로 이주하여 활동했지만, 고국 장애미술인의 창작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갖고 독려하기 위해 '이원형어워드'를 제정했습니다. 이 상은 미술 분야 전 장르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들 대상으로 공모하여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최종 1인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합니다. 지금까지 총 8명의 작가가 이 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전시장 안내



제2 전시실

① 김재호

<심장에 비수를 꽂다>

<보석>

⑤ 강내균

<평창풍경>

<봄 밤>

② 문승현

<경계에서>

⑥ 백지은

<차분한 오후>

<바이올렛 여성미>

<비는 그쳤지만>

③ 양희성

<그리움>

<자갈의 노래>

⑦ 최지현

<숨을 쉬다_호흡 1>

<숨을 쉬다_호흡 2>

④ 문정연

<흐름의 자유 1>

<흐름의 자유 2>

<흐름의 자유 3>

<흐름의 자유 5>

⑧ 한부열

<손 잡아요>

<안아줘요>

<함께하는 친구들>

작품 소개



김재호

김재호는 굵은 선과 강한 색의 대비가
돋보이는 특유의 조형 언어로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해 왔다. 어린 시절 가족을
떠나 재활원에서 자란 그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작가의 캔버스 위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팔과 다리에 집중하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긴장과 사투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다.
«물감 놀이» (갤러리 활, 서울, 2020) 외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심장에 비수를 꽂다

캔버스에 유채, 117×91 cm, 2016

하트 모양의 심장에는 작은 칼이 꽂혀 있고 화려한 색의 물감들이 그 주위를 밝게 둘러쌉니다.

김재호는 타인과의 관계 속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화면을 화려한 색감으로 채우는 과정은 그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며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석

캔버스에 유채, 117×91 cm, 2017

문승현

문승현은 회화, 안무, 영상 매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몸과 이를 둘러싼 물질적 환경 구조, 특히 도시와 건축에 대한 작업을 선보인다. 전시 기획과 공연 연출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단체 '옐로우 닷 컴퍼니'와 '선사랑 드로잉회'를 이끌고 있다. 개인전 «침묵 속 이야기를 그리다» (갤러리 활, 서울, 2018) 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올해의 작가상 (2016)을 수상한 바 있다.

경계에서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4분 44초, 2024

작가가 붉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비 개인 날,
군데군데 고인 물웅덩이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맨발로 한 발 한 발 디디며, 때로는 온몸을 바닥과
벽에 밀착해 봅니다. 마치 건물이 내는 소리를
들으려는 듯, 귀를 벽에 갖다 대 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김수근 건축가의 경동교회로, 무채색의
콘크리트 빌딩 사이 서 있는 독특한 벽돌 건물입니다.
화면이 교회의 안으로 전환되면 다른 경계를 넘어온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하고
후광이 비치는 십자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가는
그 앞에 멈춰 섭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침묵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가 건물의 구조를 따라
흘러갑니다.

양희성

직관적인 구도와 세밀한 묘사로 독창적인
화면을 구성해내는 양희성의 그림엔 낯선
세상과 교류하는 작가의 시각이 담겨있다.
기억 속 잔상이나 여행지에서의 장면,
상징적인 자연물을 소재로 자신이 극복한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다름과 개성이
공존하도록 하는 존중과 배려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음이 닿는 순간» (스페이스
445, 서울, 2021) 외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가했다.

그리움

캔버스에 유채, 116.8×97 cm, 2020

양희성 작가는 곁을 떠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그림으로 승화했습니다. 특유의 조형 언어와 색감이 돋보이는 화면에는 인물에 대한 애틋한 기억과 슬픔, 깊은 애정의 시선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자갈의 노래

캔버스에 유채, 130×162 cm, 2018

문정연

.....

문정연은 장애와 삶의 경험을 흐름과 평온함의 상징인 물을 소재로 승화한다. 특히 재활운동을 위해 찾았던 수영장, 호수, 바다의 장면을 사실적인 묘사와 유려한 선으로 담아낸다. 그는 수영장과 강물의 흐름 같은 일상의 물 풍경을 반복적으로 탐구하며 자신만의 회화적 세계를 확장해왔다. «모든 것은 흐른다» (가온갤러리, 서울, 2024) 외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흐름의 자유 1

캔버스에 아크릴릭, 90.9×72.7 cm, 2024

흐름의 자유 2

캔버스에 아크릴릭, 65.1×90.9 cm, 2024

흐름의 자유 3

캔버스에 아크릴릭, 72.7×90.9 cm, 2024

흐름의 자유 5

캔버스에 아크릴릭, 72.7×90.9 cm, 2024

재활 운동으로 매일 수영장을 찾던 작가는 잔잔히
흐르는 수면과 그 위에 반사되는 빛을 사실적이고
섬세한 기법으로 담아냅니다. 캔버스 위 물결이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선과 흐릿한 색채는 자연의
변하지 않는 생명력, 그리고 삶의 순환과 치유를
상징합니다. 물 속의 평화로운 감각을 따라가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명상의 힘을 상상해 봅니다.

강내균

강내균은 한국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색기법을 실험하며 작업해왔다. 그의 그림에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즈넉한 시골 풍경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 풍경을 중심으로 구성한 서정적인 장면 위 작가의 절제된 표현 기법은 담담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작가는 노원문화예술회관 (2010) 외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대상 (2021)을 수상했다.

평창풍경

한지에 커피 채색, 72×110 cm, 2021

강내균 작가는 머릿속으로 어린 시절의 고향을 그리며 느낀 노스텔지어를 몽환적인 분위기의 화폭에 담아냅니다. 커피의 색깔로 표현한 노을 지는 강원도의 전원 풍경은 한국화의 다양한 채색과 모필의 기법을 실험하면서도 친근하고도 신비로운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봄 밤

한지에 채색, 72×100 cm, 2024

이 그림은 어느 봄날, 불암산 자락 산동네의 초저녁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청 빛으로 짙게 채워진 고즈넉한 하늘과 하얀 담벼락, 그 위를 거니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모습은 고요하지만 경쾌한 시골 장면을 이룹니다. 그는 섬세한 묘사와 따뜻한 시선으로 일상 속의 작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백지은

백지은은 유화 물감의 두터운 질감과
환한 색채로 다양한 일상적 소재와 자연 속
장면을 작품에 담아낸다. 2005년 이후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온 그는 «삶을 풍요롭게
향기롭게» (세라갤러리, 천안, 2025),
«Température» (LIME ART gallery, 파리, 2019)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JW아트어워즈 우수상(2017)을 수상했다.

차분한 오후

캔버스에 유채, 53×40.9 cm, 2025

바이올렛 여성미

캔버스에 유채, 53×40.9 cm, 2025

비는 그쳤지만

캔버스에 유채, 53×40.9 cm, 2025

밝은 햇살 아래 반짝이는 호박은 풋풋하거나
싱그럽게, 때로는 새들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호박은 그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자, 자연과
생명의 이치를 품고 있는 아름다움의 표상입니다.
'호박' 시리즈는 하나의 대상이 시간의 흐름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채롭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최지현

최지현은 물 위에 물감을 떨어뜨려 만들어진
파장을 이용해 찍어내는 마블링과 같은
다양한 기법과 소재를 활용해 작업한다.
경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장애로
손목에 붓을 고정시켜 어깨 힘으로 그림을
그리면서도, 섬세하고 생명력 넘치는 화면을
만들어낸다. 개인전 «숨을 쉬다» (스누삼
티하우스, 서울, 2024) 등을 개최했으며,
국제장애인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숨을 쉬다_호흡 1

한지에 혼합재료, 107×107 cm, 2024

숨을 쉬다_호흡 2

한지에 혼합재료, 107×107 cm, 2024

작가는 병상에서 마주했던 창과 벽, 하얀 천장과 형광등, 그리고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던 링거 방울의 감각을 예술로 승화합니다. 수면 위에 떨어진 물감과 먹물이 만들어낸 둥근 곡선은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작가의 신체와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파동은 곧 흩어질 듯 흔들리지만, 그 형상은 한지 위에 고스란히 전사되어 끌어올려집니다. 이 과정은 마음속 깊은 무의식을 풀어주는 동시에, 치유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부열

한부열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물에 이야기를 담아내는
시각 언어를 만들어 왔다. 독학으로 그리기
시작한 그림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진솔한 언어이다. «Let's Go With
HBY 2024» (노들갤러리, 서울, 2024) 외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상 장려상 (2023)
등을 수상했다.

손 잡아요

캔버스에 아크릴릭, 61×73 cm, 2025

안아줘요

캔버스에 아크릴릭, 46×53 cm, 2025

30cm 자로부터 시작된 선들은 반복되면서 점차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도형은 유기적으로 뒤틀리고 겹치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듭니다. 화면의 따뜻한 색감과 다양한 표면의 도형이 서로를 붙잡듯 이어지며, 단순한 형식 실험을 넘어서는 감각적 유대감이 전해집니다.

함께하는 친구들

캔버스에 아크릴릭, 97×117 cm, 2025

작가의 얼굴을 중심으로 주위의 다양한 존재들이 환히 웃으며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 얼굴들은 자신의 삶 속 언제나 곁에 있어 주는 이들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원형어워드 수상작가전

2025.11.5.-12.4.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모두미술공간

주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참여작가

강내균, 김재호, 문승현, 문정연,
백지은, 양희성, 최지현, 한부열

전시조성

표표건축사사무소

미디어

만리아트메이커스

그래픽 디자인

금재성

모두미술공간 전시장운영부

총괄 백기영

기획 및 진행 김재연, 박시내

전시지원 및 홍보 정세영

행정지원 하원빈

접근성 매니저 김도영

코디네이터 김해민

모두미술공간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별관 5층

04637

02-760-9797

www.moduartspace.or.kr

✉ @moduartspace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모두미술공간
MODU ART SPACE